

삼성그룹, 전자소재 연구단지 조성

삼성전자 중심 5개 계열사 참여해 소재 연구 ... 구체적 사안 미정

삼성그룹이 전자소재 연구단지를 조성한다.

삼성그룹은 삼성전자, 삼성SDI, 제일모직, 삼성정밀화학,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5개의 계열사가 참여하는 전자소재 연구단지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2단지에 조성할 방침이라고 1월20일 발표했다.

연구단지에서는 기업별로 필요한 소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, 총 투자금액과 관계사별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

삼성그룹은 “계열사 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20>